

2018년 8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터키 리스크 지속 여파로 하락

국제유가 장중 한 때 2.8% 넘게 하락한 점도 부진 요인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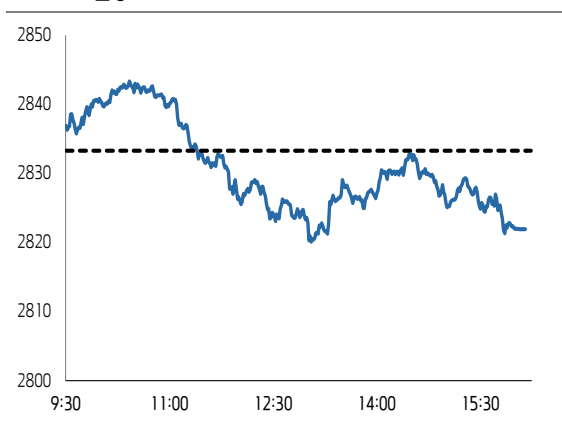
미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했으나,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터키 리라화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자 하락 전환. 다만, 오후 들어 나스닥이 견고한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한 때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하는 등 매수세 유입. 국제유가 또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된 점도 영향(다우 -0.50%, 나스닥 -0.25%, S&P500 -0.40%, 러셀 2000 -0.68%)

미 증시는 ①국제유가 하락 ②신흥국 환율 변동성 확대 ③대형 기술주 강세 영향을 받아 변화. 국제유가의 경우 OPEC 이 월간보고서를 통해 지난 7 월 산유량이 하루 평균 4 만 배럴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 했으나 하락. 사우디와 이란의 산유량이 감소한 점이 특징. 한편, 원유 수요 증가는 지난달 보다 하루 13 만 배럴 하향 조정하는 등 신흥국 수요 둔화 우려 표명. EIA 도 시추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셰일 오일 생산량이 하루 9만 3천 배럴 증가한 752 만 2천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2.8% 넘게 하락.

터키 리라화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의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 특히 터키 리라화에 이어 남아공 란드와, 아르헨티나 페소 등도 장중 한 때 10% 가까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임. 한편, 터키 리라화는 중앙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발표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9% 내외 약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은 여전. 아르헨티나 페소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조치가 이어지며 안정을 보임. 여타 신흥국 환율도 약세폭이 제한되는 경향

미 증시가 장중 하락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한 요인은 반발 매수세 유입. 국제유가의 경우 장중 한때 65.7 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67 달러를 상회하며 마감. 나스닥은 애플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한 때 상승. 미 증시는 대체로 여전히 터키 우려감이 남아 있으나, 일부 종목에 대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을 보인 점이 특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248.45	-1.50	홍콩항셱		27,936.57	-1.52
KOSDAQ		755.65	-3.72	영국		7,642.45	-0.32
DOW		25,187.70	-0.50	독일		12,358.74	-0.53
NASDAQ		7,819.71	-0.25	프랑스		5,412.32	-0.04
S&P 500		2,821.93	-0.40	스페인		9,530.40	-0.75
상하이종합		2,785.87	-0.34	그리스		720.71	-3.10
일본		21,857.43	-1.98	이탈리아		20,969.26	-0.5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에너지주 부진

애플(+0.65%)과 아마존(+0.52%)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머크(+0.985), 에브비(+1.02%) 등 제약주와 길리어드사이언스(+0.57%), 암젠(+0.61%) 등 바이오 업종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반면, 엑손모빌(-1.08%), 셰브론(-0.73%), 코노코필립스(-1.2%), EOG리소스(-1.0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2.5% 넘게 하락한 여파로 부진했다. JP모건(-1.59%), BOA(-2.28%), 골드만삭스(-1.205), 씨티그룹(-1.57%) 등 금융주는 터키발 금융 불안 여파로 하락했다.

마이크론(-0.06%), 인텔(-0.82%), TI(-0.14%), 브로드컴(-0.54%) 등 반도체 업종은 장중 한 때 상승하기도 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하락 전환하며 마감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49%	대형 가치주 ETF	-0.60%
에너지섹터 ETF	-2.59%	중형 가치주 ETF	-0.49%
소매업체 ETF	-0.55%	소형 가치주 ETF	-0.45%
금융섹터 ETF	-0.97%	배당주 ETF	-0.21%
기술섹터 ETF	-0.14%	변동성 ETF	+6.21%
소셜 미디어업체 ETF	-1.02%	대형 성장주 ETF	-0.21%
인터넷업체 ETF	-0.27%	중형 성장주 ETF	-0.51%
리츠업체 ETF	-0.03%	소형 성장주 ETF	-0.68%
주택건설업체 ETF	-1.78%	신흥국 고배당 ETF	-1.52%
바이오섹터 ETF	-0.15%	신흥국 저변동성 ETF	-1.36%
헬스케어 ETF	+0.03%	하이일드 ETF	-0.03%
곡물 ETF	-0.76%	물가연동채 ETF	-0.02%
반도체 ETF	+0.11%	Long/short ETF	+0.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7.44	-1.22%	-1.88%	-1.79%
소재	364.13	-1.04%	-2.02%	0.00%
산업재	627.51	-0.52%	-1.61%	+1.67%
경기소비재	892.17	-0.51%	-0.40%	-0.67%
필수소비재	546.01	-0.08%	-2.05%	+1.31%
헬스케어	1,036.45	+0.01%	-0.34%	+3.17%
금융	459.14	-1.02%	-1.99%	+0.76%
IT	1,279.42	-0.15%	-0.40%	+0.64%
통신	151.92	-0.19%	+0.59%	+1.52%
유틸리티	268.59	+0.09%	-0.67%	+0.93%
부동산	203.04	-0.00%	-1.62%	+0.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발 매수세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1.53% MSCI 신흥 지수도 1.64%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592 계약) 여파로 0.45pt 하락한 290.1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5.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터키 발 금융위기 리스크 우려 및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아 하락 했다. 그러나 중국 증시가 장 후반 심천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하락폭을 축소한 점은 오늘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증시 반등 요인이 정부의 정보소비 확대 3 개년 정책 발표 및 산아제한 정책 완전 철폐, 유동성 공급 시사 등에 기인 했다는 점을 감안 관련된 종목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국제유가 및 미 증시가 오후 들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나스닥의 상승 전환 요인 중 하나였던 하반기 실적 개선에 기대 애플과 아마존 강세는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6 월말 대비 KOSPI200 기준 이익 전망치가 212.3 조원에서 214.7 조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전일 관세청이 8 월 10 일까지 수출 증가율에 대해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실적 개선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2012 년 남유럽 사태(TR 기준 1.08~1.16 배) 당시보다 더 낮은 PBR 수준(TR 기준 1.05 배) 등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을 기대한다.

한편, 오늘 한국 시각 오전 11 시에 중국의 산업생산을 비롯한 실물경제지표가 발표된다. 7 월 미국의 관세 발효 이후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발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예상과 부합된다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중국, 유동성 공급 증가

중국 7 월 M2 증가율이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yoy +8.0%)나 시장 전망치(yoy +8.2%)를 상회한 수치다. 7 월 대출 잔액 증가 또한 전년 대비 13.2% 증가 하며 지난달 발표치(yoy +12.7%)를 상회했다.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 유가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

국제유가는 OPEC 이 월간보고서를 통해 지난 7 월 산유량이 하루 평균 4 만 배럴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하고 주목되었던 사우디와 이란의 산유량이 감소했으나 하락 했다. 특히 원유 수요 증가는 지난달 보다 하루 13 만 배럴 하향 조정하는 등 신흥국 수요 둔화 우려를 표명하자 장중 한 때 2.8%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한편, EIA 도 시추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셰일 오일 생산량이 하루 9 만 3 천 배럴 증가한 752 만 2 천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오후 들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달러지수는 신흥국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변화는 제한 되었다. 한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강세폭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터키 리라화는 여전히 8~10% 내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남아공의 란드화는 한때 달러 대비 9% 가까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3% 약세로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상향 조정 여파로 약세폭이 2%대로 축소되었다.

국채금리는 신흥국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변동성이 축소되고, 주식시장과 상품시장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을 축소하자 상승 했다. 한편, 미 의회 예산국은 GDP 성장률에 대해 3.1%로 0.2%p 하향 조정 했다고 발표 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도 달러 강세 및 신흥국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9%, 철근은 2.10%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7.20	-0.64	-2.62	Dollar Index	96.335	-0.02	+1.02
브렌트유	72.61	-0.27	-1.55	EUR/USD	1.1404	-0.08	-1.30
금	1,198.90	-1.65	-1.54	USD/JPY	110.64	-0.17	-0.68
은	14.982	-2.05	-2.38	GBP/USD	1.2763	+0.04	-1.40
알루미늄	2,082.00	-1.09	+1.91	USD/CHF	0.9932	-0.20	-0.40
전기동	6,153.50	-0.59	+0.33	AUD/USD	0.727	-0.44	-1.58
아연	2,483.00	-2.51	-3.35	USD/CAD	1.3128	-0.09	+0.95
옥수수	370.50	-0.34	-3.83	USD/BRL	3.8858	+0.56	+4.01
밀	553.50	-2.81	-7.33	USD/CNH	6.8972	+0.41	+0.46
대두	868.75	+0.81	-2.77	USD/KRW	1133.90	+0.44	+0.88
커피	109.30	-0.68	-2.41	USD/KRW NDF 1M	1135.65	+0.57	+0.8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73	0.00	-6.63	스페인	1.451	+4.80	+5.70
한국	2.497	+0.10	-6.80	포르투갈	1.834	+6.50	+9.10
일본	0.101	0.00	-0.90	그리스	4.248	+6.10	+28.10
독일	0.311	-0.60	-7.80	이탈리아	3.095	+10.90	+19.50